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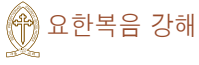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요 5:19-23)

이중윤 원로목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입증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고생으로 짙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어째서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과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19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쳐다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는 감히 비견할 존재가 이 땅 위에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이 죄야말로 신성모독이라는 무서운 죄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한 저자 요한의 해석은 참으로 기독교 역사 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1) 활동으로 동일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초점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하시므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 순종으로 동일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모든 순종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3) 사랑으로 동일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를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1 4:7-8).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소중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단하게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사랑의 마음을 크게 넓히고 힘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 생명의 주와 심판의 주로 동일시

살리신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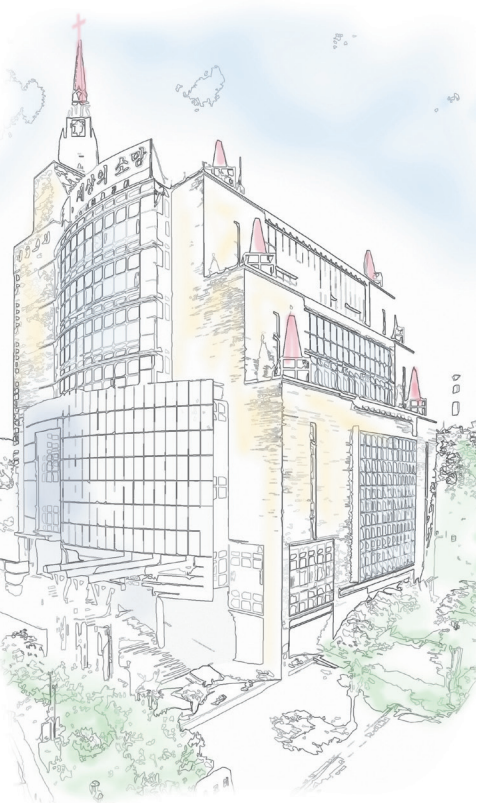
하나님은 심판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심판의 큰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5) 공경의 대상으로 동일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는 2차적인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찬송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땅 위에서 나타나고 하늘에서 나타나시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사변적인 말이 되는 공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총회재판국, 서울강남노회 전, 현직 노회임원 상대 권징 재항고건 기소명령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결 정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4-31호

사건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김시환 안수집사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 이태종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건주에 대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 재항고인(고소인) 1. 김시환 직분 : 안수집사
 2. 송인수 직분 : 안수집사
 3. 차영도 직분 : 안수집사
 4. 예완식 직분 : 안수집사

피재항고인 :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 최성욱 목사

- 피고소인: 1. 이태종 직분 : 목사(서울강남노회)
 2. 황명환 직분 : 목사(서울강남노회)
 3. 오경환 직분 : 목사(서울강남노회)

결정고지일 : 2020년 10월 19일

주 문

1. 피고소인 이태종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6항, 제12항의 죄과를, 피고소인 황명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의 죄과를, 피고소인 오경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의 각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300만원 중 200만원은 서울강남노회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100만원은 재항고인(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재항고인(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관하여 피재항고인이 헌법 권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년 7월 8일 당 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였다. 재항고장과 기록을 수리한 당 재판국은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필요한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소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주 장	서 기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주 원

1. 상설기구인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미설치의 직무유기 죄과
2.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파송 관련 서울교회 당회 업무방해 죄과
3. 적법한 대리당회장이 아님에도 대리당회장을 사칭하거나 당회를 소집하고 예배 주관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의 허락도 없이 박노철 목사 측에 설교자를 물색 지원하는 등의 직권남용 죄과
4.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선출된 15인을 장로로 인정하고 박노철 목사가 출교판결을 받아 서울교회에 당회장 결원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당회가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주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죄과

서바함 대표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안수 집사 4명은 2020년 1월 14일(화)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여 서울교회 분쟁을 격화시킨 이태종 목사, 황명환 목사, 오경환 목사 등 서울강남노회 전, 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1. 상설기구인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미설치의 직무유기 죄과, 2.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파송 관련 서울교회 당회 업무방해 죄과, 3. 적법한 대리당회장이 아님에도 대리당회장을 사칭하거나 당회를 소집하고 예배 주관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의 허락도 없이 박노철 목사 측에 설교자를 물색 지원하는 등의 직권남용 죄과, 4.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선출된 15인을 장로로 인정하고 박노철 목사가 출교판결을 받아 서울교회에 당회장 결원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당회가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주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죄과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위 목사들이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

2항, 제6항, 제8항, 제12항 등의 죄과로 권징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접수한 서울강남노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이상 상설되어 있어야 할 기소위원회조차 아예 설치를 미루며 계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위 고발인들은 이러한 노회의 행태는 총회 헌법상의 불기소 간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8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이들 피고발인 목사 모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강남노회는 당연히 지교회 행정을 도와야 할 노회 임원이나 목사들이 특정 목사에게 편향되어 공적 처리회가 되어야 할 노회를 마치 사적 단체처럼 운영한데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신기원 박계순 한길동 이주현·이주영 정춘혜 김인아 김영표 황보추자 정인건·남영주 김복녀 이미경 주화인 한종호 이철민·이중균 전희정 이만구·권성자 김형배 감우균·김연화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Q.R 교인증 발급 및 발열체크

교회 자체에서 발급
개인정보 노출 문제 없음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교회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의 원활함을 위해 출석교인을 대상으로 Q.R. 교인증을 발급하였다.

교회 입장 시에만 사용할 본 교인증은 교회 자체 발급이므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없다. 교회에서 발송한 문자에 링크 된 주소를 클릭하면 경고 안내 문구가 뜰 수 있으나 안전한 주소이므로 확인을 누르고 교인증 발급화면으로 이동 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주일 입장 시 체크하면 된다.

또한 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두려움에 따라 발열체크를 1층 정문과 지하 1층(지하주차장 사용 성도들 대상) 두 곳에서 진행한다.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2층에서 돌계단 쪽 문을 개방하여 코람데오쪽으로만 나가도록 하여 입장과 퇴장 성도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입장 시 '자동발열체크기'에 등록이 안된 성도들은 교구와 성명 등을 반드시 등록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예배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16(월) - 11. 21(토) 새벽 5:00 - 6:00

강사 : 손달익 목사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1월 16일(월)-21일(토) 새벽 5시에 있을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손달익 목사
(서문교회 담임목사)

손달익 목사 약력

- 서문교회 목사(1986-현재)
- 세계개혁교회연맹 아시아 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현, CBS재단이사장
- 현, 은평장학재단 이사장
- 현, 국민문화재단 이사
-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졸

2020 사명자대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이겸손 집사
(2020사명자대회 기획분과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명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사명자 대회였지만 거의 일 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가고 바이러스의 온상인 양 떠들어대는 마스크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사명자대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예배당이 될 수 있고 모바일기기를 통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모일 수 없기에 사명자대회 때마다 늘 등장했던 예배당의 기도판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과의 둘만의 약속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명자대회가 시작되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며 본당에서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찬양연주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였는지 마치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이 또한 익숙하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인이 눈물로 기도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계심을 보여 주셨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표대로 언제 마무리될지 알지 못하던 긴 터널 속 같던 우리의 상황을 정말 극적으로 이 사명자대회 기간에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거꾸로 돌이켜보면 너무나 당연시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잠시 일상의 속도를 줄이는 시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망가져 버린 이 땅 역시 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와 우리가 모이는 서울교회에 임하게 되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2020 성경암송대회 오늘 예선

예선 : 오늘 / 교회·온라인

본선 : 11월 7일 (토) 교회·온라인

2020 성경암송대회 교육부서별 예선이 오늘 교회와 온라인에서 치뤄진다.

- 전교인 암송 : 본선 11월 7(토),

서울교회 현장암송

-암송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각 교구 간사나 김혜연 집사(010-3923-9913)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 순례자 주최 -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0 사명자대회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0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펜, 크레파스, 매직, 나뭇가지, 붓, 잉크, 먹, 물감, 타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쓴 손글씨를 의미한다.

* 참가방법

1.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코람데오(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혹은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를 손글씨로 작성

2.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성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4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손글씨로 작성하고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손글씨 재료나 참가 갯수 또한 자유다.

* 참가자격

유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기한

2020. 11. 15(주일)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참가자들에게는 순례자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김태민 학생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성북참요양병원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김태민입니다.

저는 2017년 서비스학과를 졸업해 롯데시네마에 취업해서 2년 동안 일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요양원에 취업을 하면 장기간 취업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용기를 내어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에 편입하여 다시 공부를 하게 되

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후배들이 잘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 가까이 있는 좋은 직장

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북참요양병원 재활치료실에 배치되어 재활치료보조, 어르신 말벗, 휠체어이동보조, 재활치료실 정리정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과 다르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고 인간관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째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가끔은 어르신들 이름과 휠체어 번호를 깜빡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적금도

하고 자동차 학원비도 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 도로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하여 자동차도 사고 학교에 운전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취업하면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첫 월급을 기부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선행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후배들이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꼭 학교를 방문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도 함께 일하시는 선배님같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직장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대학, 인천강화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교육 및 진로체험” 실시



호산나대학 이동귀 부학장 강의



애견케어학과 진로체험

발달장애인 취업사관학교 호산나대학은 10월 27일(화) 인천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학부모교육 및 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인천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0 장애학생 성인기 전환 준비를 위한 학부모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교육과 진로체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발달장애 자녀의 질적 삶을 위한 주요 쟁점과 평생대책’이라는 주제로 호산나대학 이동귀 부학장의 강의와 애견케어학과 및 노인케어학과의 진로체험으로 진행되었다.

호산나대학 이동귀 부학장은 “발달장애의 아동기 및 청소년기 부모님들은 ‘학습의 준비도(Learning Readiness Skill)’는 생활중심 교육지

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신변자립기술과 자기 결정권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이 애견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체험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반려동물관리사 및 훈련사라는 새로운 분야의 직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호산나대학의 5개학과(애견케어, 노인케어, 뷰티케어, 사무자동, 서비스학과)는 언제든지, 누구나 참관 및 체험 수업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많은 특수교육대상 및 관계자분들의 참여가 제한된 인원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호산나대학,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발달장애인 취업사관학교인 호산나대학은 11월 13일(금)까지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을 모집한다.

호산나대학은 이번 정시모집으로 총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판정을 받은 대상으로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다.

호산나대학 학부과정은 교양학부 1년, 전공학부 2년으로 나누어지며 원하는 학생은 졸업 후 인턴십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학부는 노인케어학과, 애견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사무자동학과, 서비스학과 5개 학과로 운영된다. 또한 전교생에게 1년간의 교내 기업 채용을 통해 약 1년치의 등록금 감면 효과를 주고 있다.

입학 희망자는 호산나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일 경우 호산나대학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입학시험은 11월 21일(토)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7일(금) 공지될 예정이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호산나대학 홈페이지(www.hosannacollege.net)와 호산나대학 입학관리팀(031-585-91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도여러분 주변에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지난 10월 25일(주일) 박노철 목사 측이 교회를 반환함에 따라 본당 재입당에 앞서 아침 8시 20분에 2층 정문에서 간단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 종윤 원로목사는 시편 124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을 부르며 재입당을 하였다. (사진 : 김애리 집사 유은경 집사 임종현 집사)



궁금해요! 캘리그래피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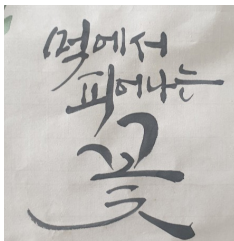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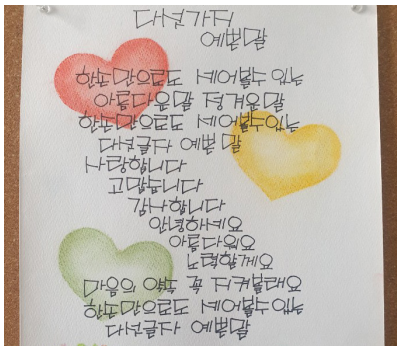
2020 사명자대회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0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캘리그래피가 뭐가요?" 궁금해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먹, 잉크, 아이패드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쓴 글씨를 말합니다.

그럼 예쁜 글씨만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빼돌빼돌한 글씨도 캘리그래피는 개성있다고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번 사명자대회 주제인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코람데오 (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혹은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성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를 손으로 정성껏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3면을 참조해 주세요.



캘리그래피 예시

봉사자 모집

교회가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반환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 곳곳에서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주일 2부 예배 안내위원 : 부장 예산식 집사, 차장 김순진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출입 교인 발열체크 및 Q.R. 교인증 확인을 위한 봉사자 : 사무국에 문의 바람

교회 내 분실물품 조사

교회는 지난 10월 21일(수),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점거 중이던 교회건물을 반환받은 후 부서별 점검 및 대청소 중 교회내 집기 및 개인 물품 다수가 분실되었다는 의견들이 접수되어 실태조사에 나섰다.

각 부서별로 분실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기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온라인 '학부모기도회'



온라인 학부모기도회가 매일 아침 성경말씀 1절을 묵상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오전 9시에는 "3분의 기적" 말씀묵상, 밤 10시에는 서울교회와 자녀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각자 처소에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성도들은 중·고등부로 연락 바란다.

- 고등부 부장 : 정완진 집사 010-8889-9133
- 고등부 부감 : 한상욱 집사 010-8007-1506
- 최영경 권사 010-8618-6180
- 기도회 담당 : 박혜정 집사 010-8730-0452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1월2일	월	요 19-21		암 1-9, 욥, 욘 1-4	
11월3일	화	행 1-2		미 1-7, 나 1-3, 합 1-3	
11월4일	수	행 3-5		습 1-3, 학 1-2, 슥 1-5	
11월5일	목	행 6-7		숙 6-14, 말 1-4	
11월6일	금	행 8-9		마 1-6	
11월7일	토	행 10-12		마 7-11	
11월8일	주일	행 13-14		마 12-15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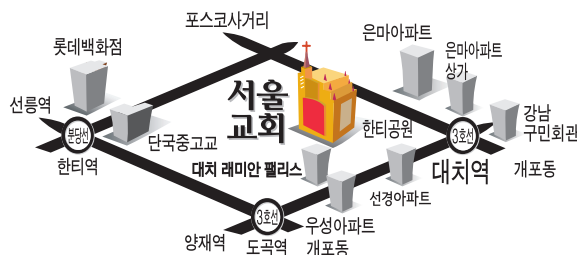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교회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훼손된 예배당이 복구되기까지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2. 11월 1일(주일), 7일(토)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3. 2020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씀으로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